	<b>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통상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
		일시	2023. 9.

## CEPA Insight

- 尹 “인니는 핵심 협력국” 조코위 “수교 50주년 매우 중요”
- 尹,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의 역할 강조
- 한·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

### < 2023년 8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769,013천불	-13.9%	1,096,346천불	-23.7%	-327,333천불
충남	325,668천불	-55.7%	509,546천불	-4.7%	-183,878천불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## ■ 尹 “인니는 핵심 협력국” 조코위 “수교 50주년 매우 중요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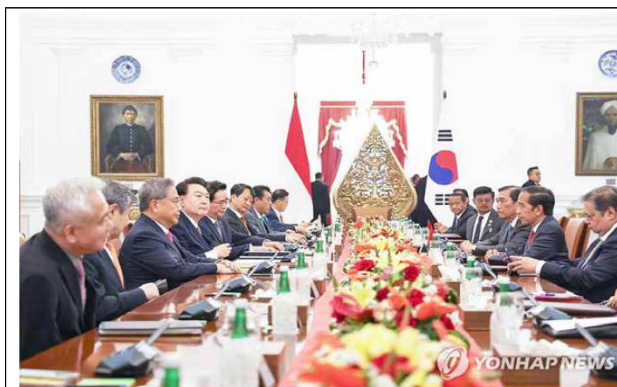
- “자카르타 대통령궁서 한·인니 정상회담...전기차 생태계 MOU 등 서명식
  -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간 정상회담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개최됨.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치, 사회,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, 이들이 인도-태평양지역의 자유, 평화, 번영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밝힘. 또한,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능력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조함. 조코위 대통령도 “수교 50주년을 축하한다.”며 “이는 양국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”고 말함
  -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4번째 만남을 가진 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양 정상에 자리한 가운데 ‘산업협력 양해각서’, ‘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파트너십 기술약정’, ‘전기차 생태계 조성협력에 관한 양해각서’, ‘할랄식품 협력 양해각서’ 서명식이 진행됨

## ■ 尹,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의 역할 강조

- “첫 일정 동포간담회...작년 발리 G20 참석 이어 인도네시아 2년 연속 방문
  -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함.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동포들의 코로나 위기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지원에 대한

노력을 칭찬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정신을 강조함. 또한,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조하며 동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포들과 협력을 당부함

- 윤 대통령은 "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남다른 경제 발전 잠재력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"고 말함. 윤 대통령은 "지난 50년 전 양국수교 당시 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연간교역액은 작년 260억불을 기록했다"고 함
- 동포 간담회에서 한식의 인기와 함께 무슬림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 특성을 고려한 할랄 인증부족문제와 복수국적자의 비자이슈가 논의됨. 윤 대통령은 할랄인증문제에 대해 양국 간 MOU 체결을 통한 성과를 언급하고, 복수국적자의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입국기간을 늘리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함. 이 행사에는 외교부 장관과 관련 부처 대표, 한인회장단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, 동포 기업인 등 180여명이 참석함



<한·인니 확대정상회담>



<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>

(출처: 한인포스트, 2023.9.11)

## ■ 한·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

- “尹 “인태지역 핵심협력국으로 원전·광물 협력강화...아세안 참석 16건 MOU·계약 체결”
-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원전 건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. 윤 대통령은 '한·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(BRT)'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,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전략을 제안함.
-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·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-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며,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함. 또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기반으로 50주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해야한다고 언급하며, 한국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을 강조함. 윤 대통령은 국경과 국적을 넘어가는

청년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을 약속함

- 윤 대통령의 BRT 참석을 계기로 원전, 핵심광물, 신도시 건설 등 16건의 양해각서(MOU)와 계약이 체결됨. 분야별로는 ▲원전(원자력 산업 협력 MOU) ▲모빌리티(모빌리티 운영 협력 MOU·전기이륜차 생산기반 구축 협력 MOU) ▲핵심 광물(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 MOU·핵심광물 공급망 및 기업 투자 촉진 협력 강화 MOA) ▲자원재활용(순환경제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협력 MOU) ▲전력·청정에너지(배출저감 및 친환경플랜트 전환 협력 MOU,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 공동개발 협력 MOU, 해양 폐광구 활용 탄소저장사업 협력 MOU·변압기 제조 합작법인 계약· 전력기기 사업 협력 MOU) ▲산업(뿌리산업 인력양성 MOU·건설기계 사업 협력 MOU·아세안 패션유통산업 시장 확장 협력 MOU) ▲보건·정책(국립 응우라병원 위탁운영 계약·아세안 문제 연구 협력 협정) 등이 있음

(출처: 한인포스트, 2023.9.11)

## ■ 시사점

-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과의 관계가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으며,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 대통령이 최근 회담에서 다양한 분야 협력강화가 약속됨. 두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으며, 산업, 농업, 전기차, 할랄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협정이 체결됨. 또한, 한국의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짐. 끝.